

### 이렇게 들었다

### 소문

## “거짓말하는 입 못사람 괴롭혀”

현직기자들과 정치인이 연루된 언론 문건사태가 명확한 실체규명에 실패해 무성해져 소문만을 뒤로한채 실 지부지 꼬리를 감추고 있다. 특별검 사팀에서 수사중인 오로비 사건도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사적동내 사립의 문건을 전달한 실체에 대한 것은 소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수한 고문 기술사 이근인씨의 경우도 그를 비호한 배후세력과 관련한 소문들이 항간에 나돌고 있지만 소문만 난무할뿐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실체규 명보다는 잇단 소문으로 의혹을 더 하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진실보다는 소문에 더 혹하게 되는 법이다. 경정기문데 이 와 관련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객적은 말만 주로 하여 오직 중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로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이를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횡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꺾으면서 도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무량정광명동각경>

■ 중생들은 몸으로 악업을 이루며, 입으로 악업을 이루며, 마음으로 악업을 이루며, 성자들을 비방하여 사견과 사견업의 인연을 이루는 까닭에,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

■ 중생이 옛날에 많은 죄를 널리 짓

고 신(身)·구(口)·의(意)의 행위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한 까닭에, 마지막에 목숨이 다하면 지옥 같은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며, 지옥의 보가 끝내도 여음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대해(大海) 속에 떨어져 축류의 보를 받게 된다. <사설론>

■ 온갖 죄는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입과, 내세를 배척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파리문법구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이라.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없이 진실한 말이 세번째이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번째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지사가 일어나 계승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

다. <별역잡아함경>

■ 말(斗)과 저울로 남을 속인대거나,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문법업보경>

■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 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중유정법경>

■ 수보리야, 불퇴전의 보살은 어느 때거나 모든 말이 내용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남의 미오(美惡) 장단(長短)도 살피지 않는다. <불출생경>

■ 사문이 되기는 했어도 몸과 입을 조심하지 못하여, 거칠고 나쁜 말로 중상하는 바가 많으므로 못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지혜있는 이가 아끼지 않으며,

죽고 나면 삼도에 윤회하여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어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법구비유경>

■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스러우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절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난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행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지족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으므로써 다음을 화해시켜 원한을 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하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대아미타경》

■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를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다섯가지는 주변조건이다. <팔리, 율장대품>

■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늘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열치웠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위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싘를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결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목탁 소년**

위 영 란<뉴미디어부장>

불교TV이사회는 허문도 사장을 11월24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했다. 허씨의 해임은 불교 언론기관에서 사상 해임의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불교 공익 공동단체의 지도자 자격 요건을 재삼 일깨워 주는 교훈을 남겼다. 허 전사장의 영입때 제기됐던 허문도 사장이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성원에 신경전을 벌인 허씨는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과 전 주지 무공스님, 비상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에게 “진짜 듣기 이사 맞아요?”라며 회의태도를 면전에서 확인하는 등 무례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또 해임결의를 안건에 부의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을 치는게 불교집안이나, 칼질해요. 난 당할테니까”라고 소리치면서 회의를 떠났다. “종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는 그의 말대로 불자로서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과연 그가 장관을 지낸 수준의

**허사장 해임의 교훈**

판단력을 가진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을 가우동하게 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대목이었다.

허씨를 해임한 이사회서 나온 이사들의 ‘왜 해임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한 내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불교TV 초대 사장으로 대표회장인 태웅스님은 “투자자도 주주도 아닌 불교TV와는 무관한 허장관을 영입한데는 회주보살로서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치도 그만두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30억원의 주식도 무상기증해 달라기에 인계했지만,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있더니 이제 다시 회수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팔겠다”고 말했다. 총지종 총지화 총리원장은 “오직 불교TV만 산다면 하는 마음으로 영입에 동의했다.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배려도 할만큼 했다. 지금 불교TV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허씨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는 불교일은 신심있는 불자가 순수한 포교와 불교관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중요한 회의였다.

## “무소유의 삶은 새처럼 자유롭지요”

20여년간 누더기 한벌만 걸치고 필른대학 근처 숲에서 살며 불법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거지성자 페트 노이아르(60세). 그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유통기간이 지난 시트 채소와 흑병으로 유명하면서도 동서양의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를 일컬어 ‘세기를 관통하는 무소유 정신의 실천자’로 묘사한 전제성 한국배리성전학회 회장의 초청으로 11월16일 한국에 온 페

트 노이아르는 지난 해 국내에 발간된 인문과학서로는 드물게 1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거지성자>(선재 계)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는 독일내 태국, 티벳, 스리랑카, 중국의 사원에 갔지만 관념화 형식화된 사찰의 모습을 보고는 홀로 부처님법에 따라 수행을 하며 불법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한 페트 노이아르는 영동포 배리성전학회 전제성회장의 서재에서 만나 그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을 들어왔다.

### ‘독일의 거지성자’ 페트 노이아르 방한 인터뷰

-왜 집없이 숲의 나무 밑에 살고 있는가?

▲무소유의 삶은 새처럼 자유롭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허물어진 빈 집에서 명상을 하셨다. 대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다 보니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나무 밑에서 잠자며 탁발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계을 안지켜서 승단분열**

-기성종단의 생활과 위배되는 것 아닌가?

▲종교가 조직화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말씀하셨다. 즉 가르침만을 유일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지 못해 승단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계율만 지키면 분열과 혼란은 저절로 사라진다. 또 싸움은 무아사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있는데 누가 싸움을 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예고에서 나오는 분쟁의 마음은 삼보인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된다.

-기성승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부처님은 승가에 어떤 계급이나 서열을 정해주시지 않았다. 제자와 문중을 만들게 하지 않았다. 또 승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장자인 자와 포살을 보름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부처님은 그러한 모임을 통해 제자들이 법을 상기하고 가장 겸손하

게 반성하도록 했다. 수행자는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질된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가르침에 따르게 됐는가?

▲인도 관련 서적을 접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티벳라마가 인도의 고아를 만나 깨달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은 키릴링의 <김>이라는 책을 15번쯤 본 것이 불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인도 보드가야에 갔을 때 버마승려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부처님 경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한 것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벽암록> 등 선불교를 공부하고 영국의 선공동체에도 들어갔는데 가르침과 실천이 부조화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 들어가 부처님이 실천한 것을 따르게 됐다.

**성자들의 가르침은 같아**

-종교를 보는 눈이 넓은 것 같다.

▲부처님과 위대한 성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동일하다. 종교들은 욕망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망에 패배한다. 부처님께서 오욕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흥분하지 않는 분야를 알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교가 특히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세계는 분명하고 깨끗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25세나 30세기 인류가 봐야 받을 수 있는 미래적인 사상이라고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아름답다.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예언을 배격하고 세월이 변해도 수정처럼 맑은, 변치 않는 진리를 설행했다. 부처님 법에는 지혜로 인간의 우매함을 견어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담겨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의사**

-깨달음의 추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다. 최종 목표는 깨달음이다. 부처가 되려는 욕심이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단지 수행을 오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의사이다. 어려운 난제들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양에서는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의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사상과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법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실천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가?

▲자연이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5계를 지켜 인간정신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 사소한 관행을 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을 고쳐나갈 때 부끄러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이 따뜻하면 혼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인곡(麟谷) 대선사의 法語集을 발간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계시는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계위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해인사 원당암에서는 백용성 큰스님의 법제자 중 한 분이신 인곡(麟谷)대선사의 法語集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곡스님의 법문, 사진, 유물등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 또는 평소 인곡스님에 관한 일화를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12월 7일까지 해인사 원당암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곡 대선사 약력**

- 1895년 출생
- 백양사에 출가 득도
- 운문선원 조실(30세)
- 가야총림(해인사)에 주석
- 1961년 해인사에서 입적

**연락처**

기간 : 1999년 11월 27일 ~ 12월 7일(1차)  
주소 : 경남 함안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원당암  
전화 : 0599-932-7308, 011-9575-7308  
팩스 : 0599-931-7515

**불교성지순례에도 배낭여행 전문여행사 아제여행사가 있습니다.**

삼보귀의하옵고, **아제여행사** 새로운 출발을 스님이하 불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아제여행사는 “체험하는 순례”, “깊이가 있는 순례”를 추구하며 불교배낭여행 전문여행사로 시작했습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 중국, 티벳, 미얀마 등 불교국가를 주력하여 개인배낭여행, 단체배낭여행, 대학과 강원 졸업여행 등에 행사진행, 정보제공, 세계 모든 국가로 저렴한 항공권 판매, 비자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순례속에서 법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이제 비리이제 비리승이제 **아제여행사** 대표 구 광 국 합장

- **소승불교의 본산지 스리랑카 배낭여행 9일 (12월 8일~12월 16일) ₩750,000**
  - ◆일정 - 고대불교유적지, 세계최고 보리수 친견, 정글사파리, 하키두와해변
  -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한국어가이드(그외 불포함) ★16명 이상시 출발
- **인도성지배낭여행 12일(12월 23일~1월 3일) ₩1,040,000**
  - ◆일정 - 기원정사, 룸비니, 영취산, 녹야원, 쿠시나가르, 타지 마할, 갠지스강
  -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인도비자,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16명 이상시 출발
- **인도문화탐방 배낭여행 16일(1월 6일~1월 21일) ₩1,060,000**
  - ◆일정 - 타지마할, 오차, 카주라호, 갠지스강, 자이푸르, 부다가야
  -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인도·네팔 비자, 공항세,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 **인도 성도재일 철야기도 준 배낭여행 13일(1월 9일~1월 21일) ₩1,500,000**
  - ◆일정 - 기원정사, 룸비니, 영취산, 녹야원, 쿠시나가르, 타지 마할, 갠지스강, 아잔타·엘로라석굴
  -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인도·네팔비자, 공항세,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 **불탑의 나라 미얀마6일(12월 23-28일, 3월 1일-6일) ₩1,590,000**
  - ◆일정 - 까비에파고다, 고대도시 파간, 부처님 다려가신 만달레이
  -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비자, 한국어 가이드, 공항세

체험하는 순례 **아제여행사** ☎ 02) 783-1458, 0602  
인터넷주소 : Http://www.aje.co.kr  
E-mail : aje@aje.co.kr